

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

WEF Weekly Stories

2025년 7월 8일, WEF 4차산업혁명센터, 대한민국 경기도

C4IR Korea Global Intelligence Hub (koreago.net)

* 본 자료는 세계경제포럼(World Economic Forum)에서 매주 발간하는 Forum Stories 를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. (Forum Stories 발간일자: '25년 7월 4일)




1. 유럽, 경쟁력과 지정학



세계경제포럼은 '유럽의 성장과 경쟁력을 위한 리더(Leaders for European Growth and Competitiveness)'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고 6월 30일, 7월 1일 양일간 브뤼셀에서 그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. 이 이니셔티브는 앞으로 에너지, 기술, 금융 시장, 대외 경제 정책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.

한편, 세계경제포럼은 액센츄어와 협력해 '글로벌 경제의 미래 전망:

2030년의 경쟁력(Global Economic Futures: Competitiveness in 2030)' 백서를 발간했습니다. 백서는 지정학과 규제에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글로벌 경쟁력의 미래를 조망합니다.

-  **기사**: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**유럽의 산업 경쟁력** 약화와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전하는 글로벌 경쟁력의 미래
-  **영상 자료**: 불가리아가 **유로존 가입**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유로존에 가입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?
-  **팟캐스트**: 유럽연합(EU)이 오늘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. 그 결정권이 각국 정부에 달려 있는 지금, **유럽의 잠재력을 실현**하기 위해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살펴봅니다.

더 알아보기:

- 유럽 국가들이 **국방비 지출**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새롭게 내놓고 있습니다. 이는 갈등과 불안으로 얼룩진 과거의 고통스러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.
- **EU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날짜인 7월 9일**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EU의 **관세 협상**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을 알아봅니다.
- 유럽이 추가적인 세금 부담과 **국가 부채 증가** 없이 **성장을 달성**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합니다.

More

2. 에너지 안보와 공정성



올해 뉴 챔피언 연례 총회(Annual Meeting of the New Champions, 서머 다보스)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. 오늘날 지정학적,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**각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**하고 있습니다.

세계경제포럼은 최근 **에너지 전환 지수(Energy Transition Index)**를 발표했습니다.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118개국 중 약 3분의 2가 지난해 탈탄소 에너지 전환에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대한 **자세한 내용**을 소개합니다.

LNG, 원자력, 에너지 저장 장치(ESS), 대규모 청정 에너지 투자 등 **에너지 시장을 재편하는 여섯 가지 변화 요인**을 소개합니다.

자세히 보기:

- 아세안(ASEAN)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2천억 달러(약 273조)의 투자가 필요할 전망입니다. 아세안 지역의 **탈탄소화 실현 전략**을 소개합니다.
- 중국은 청정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에

사상 처음으로 **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성공**했습니다. 물론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지는 **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**입니다.

- 세계경제포럼의 에너지 전환 지수가 **청정 에너지 혁신 사례**로 주목한 **세 국가들**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.
-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**에너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** 필요합니다. 온실가스 순배출량 0(Net Zero)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**에너지 전환 솔루션**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.

More

3. 에디터 추천: 놓치면 안될 서머 다보스의 주요 순간들

지난주 중국에서 열린 서머 다보스에는 약 1,700명의 글로벌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.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.

- **올해의 절반이 지난 지금**, 리더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들을 소개합니다.
- **서머 다보스에는 150명이 넘는 정치 지도자들이 참석**했습니다. 중국의 리창 총리(Li Qiang)와 세네갈의 우스만 송코(Ousmane Sonko) 총리가 전하는 **국가 비전**을 소개합니다.
- 영국의 토니 블레어(Sir Tony Blair) 전 총리는 **국제사회에서 유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과 국방 강화가 필수적**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- **AI가 서머 다보스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**습니다. 에이전틱 AI, AI+, 윤리 등 **비즈니스 리더들이 알아야 할 개념들**을 살펴봅니

다.

- AI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성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, 특히 여성들의 직무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. 서머 다보스에서 논의된 [AI 성별 격차 해소 방안](#)을 소개합니다.
- 소프트 파워가 아시아의 부상과 번영을 뜻하는 ‘아시아의 세기 (Asia’s Century)’ 비전을 [실현하는 데](#)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.

More



Forum Stories newsletter

Bringing you weekly curated insights and analysis on the global issues that matter.

Subscribe today →